

해외시장 적극 공략

大 鵬電線(대표 : 李正武)이 수출 시장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대봉전선은 국내 전선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동남아 및 중동, 중국 등을 타킷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전북 익산공장(대지 7,500평)에 월간 6백톤의 전선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는 대봉전선은 지난 3월 필리핀 전력청인 NRC社와 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 오는 8월까지 3백만달러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납품기로 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또 이란의 전력업체 2개社와 ACSR (Aluminium Conductor Steel Reinforced) 전력케이블을 80만달러 수출기로 계약을 체결, 오는 8월 선적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타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시리아 진출을 꾀하고 있는 대봉전선은 중국 瀋陽의 대봉전線有限公司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봉전선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요르단 국영업체와 2백만달러 가량의 통신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 납품에 들어갔다.

경기도 안산공장에 월간 250톤의 에나멜동선 생산라인을 구축한 대봉전선은 미얀마 및 중공과 수출계약을 체결, 올해 5백달러 상당의 동선을 공급키로 했으며 올해 수출실적을 지난해보다 100% 늘어난 12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LG전선취

품질인증현황집 發刊

LG 전선(대표: 權炆久)이 최근 생산 제품에 대한 국내·외 품질인증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품질인증현황집을 발간했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된 품질인증현황집은 국제무역간 기본 전제로 자리잡은 ISO 품질 및 환경인증, 국내 각종 인증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품질인증을 총 망라하여 제품별로 정리한 것으로 영업부서는 물론 요청이 있을 경우 주요 고객들에게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LG전선 장준태(품질경영실)공장장은 "이번 품질인증현황집 발간이 고객들에게는 제품에 신뢰를 주고 구매검토 단계에서 제품과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고객의 요구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선은 특히 국내외 다양한 품질인증이나 규격승인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됨으로써 입찰시 제출서류 작성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합리화도 기할 수 있어 一石二鳥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선박용케이블이나 기기용전선 같은 해외의 품질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고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현황집을 영문으로도 발행할 계획이다.

MRI 초전도선 개발

大 成電線(대표 : 梁始伯)이 초전도기술의 가장 핵심소재인 금속계 초전도선의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성전선은 최근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용 초전도선 시제품의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사업성을 검토한 끝에 내년부터 이 제품을 상용화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성전선은 이를 위해 모두 30억원을 투자, 초전도선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발주를 마치고 충북 청원에 1천여평의 공장부지를 마련했다. 이 공장에서는

을 8월부터 시제품을 내놓는데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초전도선은 극저온하에서 전기저항이 제로인 상태로 전기적인 손실없이 높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구리 등과 같은 기존의 도체에 비해 같은 크기에서 최대 2,500배 이상의 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다. 또 넓은 공간에서 높은 자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초전도선으로 제작된 각종 기기들도 고효율 저손실과 함께 부피도 줄일 수 있어 핵융합은 물론 핵자기분광기(NMR)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초전도기술을 21세기를 선도할 최첨단기술로 보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

현재 대성전선이 개발한 초전도선은 선진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MRI용 초전도선과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성전선은 이와 함께 초전도선과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필라멘트 개수가 더 많고 높은 자장에서도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NMR용 초전도선도 오는 '99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장비인 MRI와 달리 물리 화학 약품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프리카 內燃발전소 受注

우리나라 기업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세워질 1억 2천만달러 규모의 內燃발전소 공사를 일괄 수주했다.

한국중공업(대표 : 朴雲緒)은 지난 4월 16일 경남기업, 대우와의 컨소시엄으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內燃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 일괄 도급방식으로 공급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회사 李種文상무(엔진사업본부장)는 현지에서 테스파이 게브레세라 에리트리아 동력자원부 장관과 15일(현지시간)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內燃발전소는 22MW급 4기로 총 88MW 규모이며 '99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과 경남기업은 설계제작 설치 시운전 등 모든 건설과 정을 일괄 수주방식으로 진행하며 대우는 각종 설비 수출을 맡는다.

이번 공사 수주로 3사는 추가로 발주될 예정인 총 44MW의 발전소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한국중공업은 지난해 5월 미국령인 팜에서 40MW급 內燃발전소 2기를 일괄 수주했다.

또 현재 인도에 39.5MW급 발전소

4기, 중국 상하이(上海)에 12.8MW급 內燃발전소 4기, 파푸아 뉴기니아에 12.3MW급 발전소 2기 등을 수주해 건설중이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에서 9개의 內燃발전소 건설관련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한국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세계 제일의 內燃발전소 공급업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發電설비 생산개시

現代重工業이 국내 민간기업으로 처음 '전기기계의 꽃'으로 불리우는 발전설비의 생산을 개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터빈발전기 공장 현장에서 100MW 용량의 가스터빈용 발전기의 생산을 완료하고 이를 오는 5월까지 현대석유화학 대산공장에 건설되는 500MW 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96년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 해체와 '97년 발전설비시장 개방을 앞두고 '94년 8월부터 3500억원을 투자, 작년 11월에 최신시설의 대규모 터빈발전기 생산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이 공장은 4만 3천평 부지에 제관, 기계가공, 터빈조립, 대형발전기, 전동기 등 5개의 대규모 공장으로 이루어졌

으며 현재 현대석유 화학과 현대전자의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갈 가스터빈용 스팀터빈용 발전기 2기, 스팀터빈용 2기, LNG船용 스팀터빈 2기 등을 제작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발전기 생산을 계기로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이 2010년까지 총 46조 5천억원을 투자해 건설할 계획인 122기 5만 7천MW 규모의 국내 발전설비 수주를 위해 영업을 펼치는 한편 인도·파키스탄·동남아 등에 발전기를 적극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발전기 생산은 지난 '79년 웨스팅하우스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추진됐다가 '80년 중화학공업투자 조정조치로 좌절된 이후 18년만에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李壽珍 상근부회장 취임

韓 國電機工業振興會(회장:이희중)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수진전 대한전기협회사무국장을 지난 4월 1일로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수진부회장은 경남 마산태생('3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62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첫발을 내딛고 △(同社)진해영업소 소장('72년) △(同社)교육훈련부 차장('78년)

△(同社)연료부 차장('79년) △(同社)포함지점 지점장('83년)등 20여년간 韓電에서 몸담아 왔다.

또한 '89년부터 '94년까지 대한전기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이수진전기공업진흥회 부회장은 30여년간 전기계에 몸담아 오면서 깔끔한 업무수행과 외유내강의 전력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취임식에서는 「전기 공업 발전과 회원업체 권익 신장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합심 단결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LG산전(株) 전자식안정기, Q마크 획득

LG 產電(대표 : 李鍾秀)의 전자식안정기가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으로부터 Q마크를 인증받았다.

LG산전은 지난해 高마크와 ISO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Q마크도 획득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선두업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Q마크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국내 6개 민간시험기관과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취득한 업체에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신제품 공동개발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LG산전의 전자식안정기는 이번 시험에서 제품성능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류고주파함유율(THD)이 10% 이내로 측정되어 전자파에 의한 잡음과 감박거품을 해소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EMI등급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90년 전자식안정기 사업을 시작한 후 줄곧 수출에만 주력, 지금까지 800만대 이상의 수출실적과 필립스나 모토롤라 등 세계적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4.5%의 시장을 점유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은 LG산전은 '96년 하반기부터 국내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LG산전은 '97년을 국내시장 참여의 원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고급형·표준형 제품 출시와 AS망 확대, 그리고 에너지절약 사업인 "ESCO"와 연계한 영업 전략으로 매출 7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전자식안정기는 형광등과 같은 조명기에 설치,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전기효율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절약기기로 현재 시장이 700억원 규모로 팽창하고 있어 정부나 한전에서는 '녹색조명운동'과 '高마크제도'를 시행하는 등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국내 6개 민간시험기관 : 한국원사직물, 한국화학시험, 한국의류시험, 한국전기전자시험, 한국생활용품시험, 한국기유화시험연구소 ■